



기출거미손

〈분석방법 이해하기〉 – “지문”

① 제일 중요한 내용

정의(개념), 의문제기(답), 결과(인과), 계산식, 비례&반비례(~수록 ~하다), 문제상황&해결방안 조건(가정 ; ~면[~ 경우, ~때, ~따라] ~하다)

① 제일 중요한 내용

: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 >로 표시합니다. 밑줄을 긋고 굵지 않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나 적어도 어떤 기준으로 밑줄을 긋고 굵지 않는지는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시험장에서 막힘없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기준이 없다면, 선생님의 기준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
긴 지문일수록 정보들의 위계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 >에 해당하는 미시 독해의 핵심 원리들은, 표시하는 동시에 꼭 이해하며 읽어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

정의(개념) – Definition

: 정의는 지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선지에서 개념의 정의를 자체를 그대로 끌고 와서 워딩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내용 일치-불일치 형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죠. 정의엔 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 >로 처리하여 개념을 확인하면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선지에서 다시 지문으로 올 때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의문제기(답) – Question & Answer

: 의문을 제기하는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서 앞으로 나올 내용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독자에게 의문을 제기하며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과 중간 부분에서 핵심 내용을 심화하기 위해 논지를 구체화하고 강조하는 문장으로 구분할 수 있죠. 대개 처음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내용을 짐작하며 읽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읽으면 됩니다. 물론, 보통은 답은 바로 나오는 편이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 답이 이후 어떻게 구체화되고 심화되는지를 잘 따라가면 3점짜리 어려운 문항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 이하에서 나오는 의문제기&답변의 유형은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자체가 핵심이 되죠. 중간 이하에서 질문을 제기할 땐 처음에 던져놓은 화두를 바탕으로 구체화한 개념을 한 단계 심화해서 어렵게 접근하려는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보기> 문항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인과) – Effect

: 인과는 사실 ‘원인’과 ‘결과’ 모두가 중요합니다. 실제 선지에서 선 둘 다 중요한 비중으로 오답과 정답의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원인과 결과의 기호를 구분한 이유는 실제로 문장에서 위계를 나눌 땐 그 문단의 결과 문장에 주목하면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도 원인과 결과를 나눠서 상황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체계를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통, ‘따라서, 그 결과, 결국, 그리하여~’ 등의 표지어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문장들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

계산식 – Formula

: 계산식은 반드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출제됩니다. 글로 써진 수식들은 분수나 공식으로 바꾸어 정리해두면 비례&반비례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편리하죠. 이 때, 계산식의 변수들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꼭 이해하며 독해해야 합니다.

비례 – Proportion & 반비례 – Inverse Proportion

: 비례&반비례 개념이 나올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살표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하고, 시험지의 빈 공간에 개념들을 정리해서 일련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권합니다. 보통 ‘~수록 ~하다’라는 문장으로 표시되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별표부터!

문제상황 – Problem & 해결방안 – Solution

: 수능 독서 지문의 목표는 대개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구체화되거나 심화된 내용을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갈래를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땐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해결 양상에 주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 직접 방식 또는 ㉡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

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0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 ②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 ④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검사선이)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

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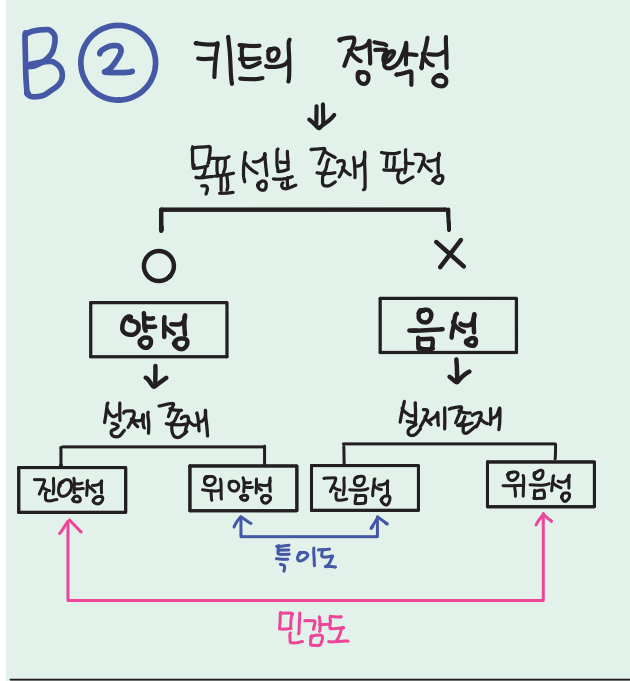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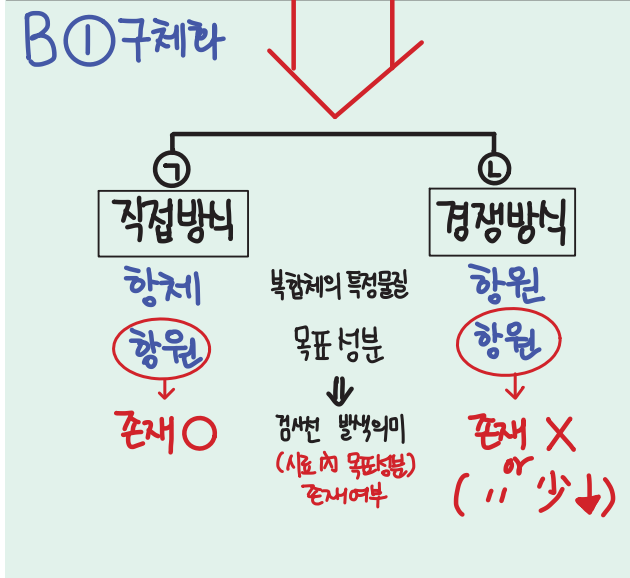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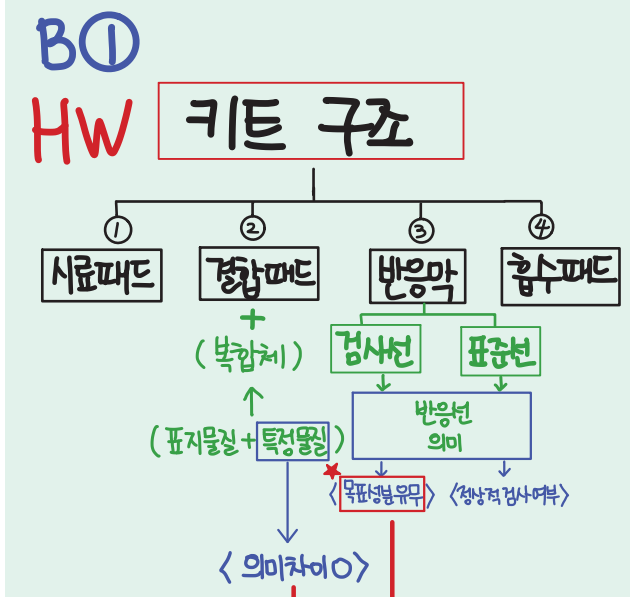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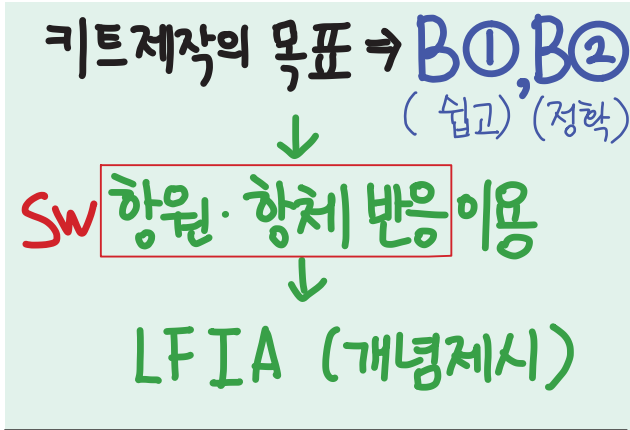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으면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BO
HW

BO
구체화

B2
심화

항원



이상 : 민감도 ↑, 특이도 ↑ ⇒ 정확도 ↑

↕

현실 : 한계 0

미시분석

1문단

1)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2)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이러한 필요에 따라 /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4)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반응을 말한다. 5)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 휴대성이 높고 / 분석 시간이 짧은 /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문장1) 분석

원인[C]

(건강 상태 진단 or 범죄 현장의 혈흔 조사를 위해)

결과[E]

→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사고 영역의 기준

서두에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개념이라도 잡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핵심 주어와 서술어에 집중해보자.

특히, 재진술되는 정보는 무조건 이해하며 생각해야해. 즉, 1번 문장의 많은 정보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핵심 원인이고, 어떤 부분이 결과인지를 생각하며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좀 더 쉽게 들어올거야. 잊지 말고, 앞부분 거미손분석도 참고하며 읽어봐 ^^

행동 영역의 기준

- 첫 문장은 항상 심플하게 기억하기!
- 원인과 결과 문장에서 '결과'를 중심으로 독해할 것!

문장2)3)4)5) 분석

핵심은 "문장1)의 화제 구체화"

<키트 제작>

(요구사항 : 적은 비용,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해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키트 개발



<항원-항체 반응 :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



<① 휴대성이 높고, ② 분석 시간이 짧은>

<LFIA를 이용한 키트 개발>

요약하면, 키트 제작에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한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이 중 LFIA를 이용한 다양한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

사고 영역의 기준

첫 번째 문장은 앞서 말했듯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떤 구조가 나오게 될지 여러 부분들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집중해서 보아야해. 그렇지만, 꼭 기억하고 가야하니 핵심 내용을 위주로 심플하게 기억해야하고! 실제 지문의 비율로 따지면 1~2문단은 구성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지문 전체의 핵심 내용을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50%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때, 모든 정보들을 한번에 짚 정리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핵심 주어와 서술어를 분리한 후, 재진술되는 정보를 끌고가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아. 1문단의 내용을 보다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선 계속해서 내용을 구체화하며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즈음에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

문장1)의 결과 문장에서 '검사용 키트'에 대한 언급이 있고난 후, 문장2)에서 바로 '키트의 제작' 이야기를 시작하며 구체화했으니 이제 제작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해. 이 때,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말의 재진술이라 () 표시가 적용되거야. 그리고 문장3)과의 관계로 보면 '문장2)의 필요에 따라'가 도니 문장2)는 크게

01

정답해설

③ [2문단] LFA 키트에서 검사선의 발색은 목표 성분의 유무를, 표준선의 발색은 검사의 정상적인 진행 유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2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만 했다면 표준선은 무조건 발색하는 것이고,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표준선이 발색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직접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이 없을 때, 경쟁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서, 검사선과 표준선의 발색 여부는 서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므로 관련이 없다.

오답해설

- ① [2문단] LFA 키트의 시료 패드는 키트의 맨 앞에서 시료를 흡수하고, 흡수 패드는 키트의 맨 뒤에서 반응 후 남은 시료를 흡수하므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 모두 시료를 흡수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1문단] 직접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이 항원의 역할을 하고, 표지 물질에 붙어있던 특정 물질이 항체의 역할을 한다. 경쟁 방식에서도 역시 목표 성분이 항원의 역할을 하고, 이 때 검사선이 항체의 역할을 맡는다. 두 방식 모두 목표 성분이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④ [2문단]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을 통해 색깔을 낸다. 이 때, 발색 반응은 반응선이 발현되게 하여 목표 성분의 유무가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⑤ [3문단] 경쟁 방식에서는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검사선이 발색된다.

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논리부정 (상반)	인과 역전	주체 왜곡	논리곱/합	오답 / 부재
	$A \rightarrow \text{not } A$	$A \rightarrow B$ ←	$A \& a / B \& b$ → $A \& b / B \& a$	{and/or} (100%/예외)	
①					
②					
③			v		
④					
⑤					

02

정답해설

① [3문단] ㉠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표지 물질에 결합된 특정 물질(항체)과 결합을 하지만, ㉡은 검사선에 도달할 때 그곳의 항체와 결합한다.

오답해설

- ② [3문단] ㉠과 ㉡ 모두,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그 목표 성분은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한다.
- ㉠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 ㉡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시료의 목표 성분 역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한다.
- ③ [2문단] ㉠과 ㉡ 모두, 키트의 구조에 따라 표준선이 검사선 뒤에 존재하므로, 시료도 검사선에 먼저 도달한다.
- ④ [2문단] 정상적인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과 ㉡ 모두 반응막에 표준선이 나타나고, 검사선은 ㉠에서만 나타난다. 표준선과 검사선 모두 반응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 ⑤ [3문단] ㉠과 ㉡에서 각각 목표 성분은 표지 물질에 결합된 특정 물질, 그리고 검사선의 항체와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한다. 표지 물질과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루지 않는다.

오답의 기준					
문항 번호	논리부정 (상반)	인과 역전	주체 왜곡	논리곱/합	오답 / 부재
	$A \rightarrow \text{not } A$	$A \rightarrow B$ ←	$A \& a / B \& b$ → $A \& b / B \& a$	{and/or} (100%/예외)	
①					
②	v				
③	v	v			
④	v		v		
⑤	v		v		

2020 수능 1등급 검토진 후기

백인혁 (서울대학교 의예과 20학번, 2020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 원점수 98)

많은 학생들이 수능 국어 공부에서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어떻게 푸는지 기억하는 것만으로 기출 공부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제 주 위에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는 기출문제에서 적용된 원칙이 올해 수능에서도 적용될 개연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즉 그 원칙(지문과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틀린 선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현주 선생님의 거미손은 아주 탁월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의 지문을 문장 단위로 잘라서 각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글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수험생이 '기출 학습'이라는 중요하지만 어려운 작업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거미손에 실린 선생님의 지문 분석과 같은 정도의 생각을 다른 기출 지문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할 수 있다면 기출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2021학년도 수능을 응원합니다. :)

박재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20학번, 2020 수능 국어 1등급 원점수 96점)

19년도와 20년도 수능에서 국어가 연속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비문학은 최근 평가원 시험에서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의 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라고 예상합니다.

본인은 흔히 말하는 국어 '노베' 였고 19학년도 불수능에서 국어 60점대를 맞았습니다.. 3평도 3등급을 맞고 방향하던 차 현주쌤 현강을 4월부터 들었고 그 결과 두 달 만에 6월 평가원에서 1등급을 받아냈습니다. 문학과 화작문도 그렇지만 비문학에서 현주쌤께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거미손 교재는 현주쌤의 비문학 풀이 방식을 확실하게 체화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있는 지문들만 체화하면서 풀려고 노력해도 금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사교 영역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쌤이 강조하시는 베이스나 P&S구조, Q&A, 원인과 결과 등을 구분 지으면서 지문을 읽으시면 금방 체화가 될 거라고 보장합니다! 또 해설도 선지마다 왜 오답인지, 오답의 기준이 뭔지 글과 표로 자세하게 나타나있어서 부족한 부분 찾기도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어 밀바닥부터 시작했으며, 수능에서 성공한 케이스로써 거미손 교재만 잘 체화하면 그 뒤로 이어질 비문학 공부와 복습에 아주 좋은 받침돌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방법론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문 사방에 밑줄을 치면서 읽거나, 아예 방법론이 없어서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나 최근 평가원 지문처럼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현주쌤의 거미손 분석이 빛을 발하리라 생각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현주쌤이 도움 많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파이팅!

조민혁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0학번, 2020수능 국어 1등급 원점수 100)

거미손은 문제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문제의 오답의 근거, 독해의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만 확인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독해한 후 문장의 괄호표시를 거미손 손필기와 비교하고, 해설로 오답의 근거를 찾다보면 자연스럽게 독해 능력이 향상됩니다!

저는 특히 문장에 괄호 표시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웠는데, 기출을 풀고 거미손 손필기와 비교해나가면서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문제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호원 (안산 동산고, 2020수능 국어 1등급 원점수 98점)

저는 거미손 교재에서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도구들을 푹!푹!푹! 머리에 새기고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수능 당일 날에 고득점을 결정짓는 것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글을 명확하게 독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더라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익숙해 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문단마다 직접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코멘트를 달아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푹! 정독하시고 최대한 체화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적어도 수십번 수백번 지문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잘 읽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100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멘트는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앞에서 말한 도구들과 같이 여러분이 직접 독해 구조 틀을 세우고 독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구조 틀만 세우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초반에는 국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이과인테도 불구하고 탐구보다 국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어떻게든 독해 구조 틀을 세우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다보니 6평부터 어느 정도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9평 이후에서도 정말 수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구+독해 구조 틀 이건 무조건 잡고 공부하시길 바라요. 거미손 교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거미손 교재는 아무 때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국어공부 시간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심지어 밥 먹을 때에도 펴놓고 그냥 쪽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유현주 선생님을 들으면 반드시 점수는 오를테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상승 폭이 결정될 것 같아요. 수능 당일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앞에 있는 것들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수험생활 2년 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여러분도 국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꼭 원하는 대학 가시고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박현근 (인천 하늘고등학교, 2020 6월/2020 9월/2020 수능 국어 1등급)

거미손 교재는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기출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풀기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손해설을 참고해서 내가 문제와 지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선생님께서 글을 읽으시는 방법을 비교해서 나의 논리를 고쳐보면 논리를 정리할 수 있고, 결국 국어 영역에서 원하는 성적을 거두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거미손 활용법은 먼저 교재의 문제를 시간을 재고 시간 내에 풀어보고, 채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다시 길게 잡고, 문제를 파란펜으로 다시 풀면서 답의 근거와 내가 생각한 것이 같은지 나중에 비교해보세요!! 현주 쌤의 해설을 보면 선지가 왜 틀렸는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손글씨 해설로 지문을 읽는 방식도 배워갈 수 있는 것은 덤)

처음에 국어공부하기에 지문들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도 않고 방향 잡아가기에 적절한 것 같아요. 국어라는 과목은 과목의 특징을 스스로 느끼고 이해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해요. 그 작업을 시작해나가기 좋은 책♡ 여러분의 2021 수능 대박을 기원할게요!